

수요가정 예배순서

1.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2. 찬 송 가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같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 기 도 기도자

4. 성경봉독 단 1:8-9 인도자

5. 말 씀 하나님의 포로 다같이

6. 찬 송 가 3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같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7. 주기도문 다같이

1.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도록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결박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도록
2.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될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3. 다니엘 금식기도회와 신약통독 특별새벽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치도록
암과 질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완전한 치료와 회복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포로 다니엘(단1:8-9)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암흑하고 어둔 시대였습니다.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국민들은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되고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없이 이국만리에서 감당해야 슬픔 이루 말할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19로 인해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 경제가 마비되어 삶이 어려워지고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힘듭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8절 보시겠습니다.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처음 만난 시험은 정체성(identity) 시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바벨론 백성으로 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벨론 정부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년들을 철저히 바벨론화 했습니다. 유대 청년들의 복장이나 이름, 언어를 바벨론 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들에게 드린 왕의 진미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왕의 진미(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봅니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강한 뜻을 환관장에게 내비칩니다. 세상의 상황, 형편을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 19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공장 가동율을 급격하게 떨어지고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일감이 없어 단축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할 수도 믿음이 형제와 교제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결심,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상 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길 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포로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심지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대제국 바벨론이 다니엘의 포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19의 포로 되기보다 ...내 힘으로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포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포로를 삼을 수 있고 나를 포로 삼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2021년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2021년도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2021년을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세상을 포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